

C_M_006 고전적본

1 개요

고전적본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고씨와 김씨 집안의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전적 자손이 장잇고을 현감살이하러 갔다가 귀향할 때 딸에게 선물로 준 옷감에 따라온 한양일월이 딸에게 병을 일으켜 굿을 하는데 양반집이라는 이유로 춤을 추지 못하게 하자 딸이 동이처럼 웅크려 죽고 말았다.

2 내용

명도암(현 제주시 봉개동) 고씨 댁은 산수의 영기(靈氣)가 좋아서 글장원, 활장원을 하는 글선비와 활선비가 많이 났다.

명도암 고씨 댁에 벼슬살이한 인물이 여럿 날 때, 고전적(高典籍) 자식이 상시관에 임명되어 장잇고을 현감으로 갔다. 고전적은 현감을 3년 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파랑저고리, 연반물 다홍치마, 갑사댕기를 딸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때 파랑저고리, 연반물 다홍치마 서대상자, 오색상자에 한양일월조상이 따라왔다.) 아기씨는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하였다.

아기씨가 여덟 살 되던 해, 정의현 예촌 양씨 댁과 혼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아기씨가 부모형제도 몰라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하루는 아기씨가 온데 간데없이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었다. 아기씨를 돌보던 하녀 느진덕정하님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장이현감이 선물로 준 연반물 다홍치마의 조각이 산중 새비낭(찔레나무) 가시마다 찢겨 걸려 있었다.

한편, 아기씨는 혼인하기로 한 예촌 양씨댁 울안 대밭에서 버들피리를 불고 있었다. 예촌 양씨 댁 머슴이 잠결에 피리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양씨 댁 일꾼들이 풍년가를 부르면서 모를 심는데, 찢어진 연반물 다홍치마를 입은 아기씨가 나타나 양손에 모를 들고 춤을 추었다. 아기씨 뒤를 쫓던 느진덕정하님이 이를 보고 아기씨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사랑방으로 데려다 놓은 뒤 큰상전에게 고하였다.

장이현감이 무녀 이원신에게 알아보니, 이원신은 한양일월조상이 물색에 따라와서 이리된 것이니 큰굿을 하라고 하였다. 큰굿을 시작하여 대시왕연맞이가 가까워질 때, 죽어가던 아기씨가 연주청에 오물떡을 먹더니 시왕상 앞으로 나가 춤을 추었다. 이 모습을 본 현감이 양반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기씨를 사랑방에 가두었다. 아기씨는 동이처럼 웅크린 채 죽었다. 아기씨를 대신하려던 느진덕정하님 악센덱과 굿을 마치고 돌아간 심방도 죽었다.

장이현감이 명도암 고장남밭에 세 사람의 묘를 마련하였다. 이 조상을 모시는 집안에서

굿을 하려면 대시왕연맞이 연주청에 오물떡으로 가문잔치를 하고 동이를 꾸며 동이풀이를 해야 한다. 명도암 고전적, 김전적 양사돈으로 전승되는 조상이다.

③ 특징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대표적인 자료이다. ‘고전적본’이라고 하였으나 ‘고전적짜님아기본’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장이현감과 한양일월조상의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른 조상신본풀이의 사례에 따르면 대개 이 둘은 정을 나누던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이고을은 정의현으로 풀이하기도 하나 조상신본풀이의 보편적인 사례에 따르면 바다 건너에 있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④ 핵심어

명도암, 상시관, 장잇고을, 장이현감, 한양일월조상, 정의현, 예촌 양씨, 느진덕정하님, 이원신, 악생덱, 큰굿, 대시왕연맞이, 연주청 오물떡, 가문잔치, 동이풀이

⑤ 원전 서지사항

고전적본(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⑥ 관련 자료